인 사 말

서 건 호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공중보건학
원헬스연구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싱그러운 기운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올여름 역시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이상기후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식품안전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요인의 증가,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소의 출현, 그리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안전은 단순한 위해요소 관리의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예방, 그리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학회는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실용적 적용, 그리고 정책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One Health(사람 · 동물 · 환경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관점에서 통합적 식품안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계 · 산업계 · 정부의 협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식품안전컨퍼런스는 우리 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Preparing Food Safety Systems for the Age of AI」를 주제로, AI 기반 식품안전 관리기술, 미래 식품안전 정책, 신종 위해요인 대응 전략,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0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AI 시대 식품안전의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님, 세계보건기구(WHO)의 Luz Maria de Regil 박사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의 Alyson E. Mitchell 교수께서 글로벌 식품안전 및 영양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 식품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향상과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연구와 정책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 산업계 · 정부를 연결하는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는 11월 제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서건호 올림